



INTERVIEW



월드컬처네트웍스 대표

송효숙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국을 외치다

유럽에 등지를 들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힘쓰는 송 대표의 부단한 날갯짓



지난 10월 10일, 예술의전당에서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빈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6년 만의 내한인 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예술의전당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관객으로 꽉 찼다. 그 속에는 빈 필의 초청으로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잠시 귀국한 송효숙 대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빈 필의 공연을 여러 번 봤지만, 한국에서 빈 필의 공연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예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빈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월드컬처네트워크(World Culture Networks, 이하 WCN)는 영산그룹 내 문화예술기획사로, 빈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와의 친선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유럽과 한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1999년 처음 설립된 영산그룹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기업의 이윤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답은 제가 살던 도시에 있었어요. 문화예술의 도시 빈에 살고 있는 만큼, 이왕이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자고 결심한 것이 2008년이죠. 3년 정도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2011년에 WCN을 설립했습니다.”

####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다방면에 걸친 WCN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선음악회다. 친선음악회는 유럽 현지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솔리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 공연과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공연 시작하기 전 현지의 국가와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의 민요를 편곡해 연주하기도 하고,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항상 가곡을 포함시킨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불가리아·루마니아·체코 등에서 10여 회 친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친선음악회에는 금난새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조수미가 협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도 지금은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웃음) 첫회는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했어요. 영산그룹이 우크라이나를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을 첫 친선연주회 장소로 정했지요. 당시 무대에서 현지의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솔리스트들이 만들어 내는 하모니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음악을 통해 현지 사람들과 한국 연주자들, 그리고 한국의 동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이었죠. 그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영산그룹의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친선음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WCN은 친선음악회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왔다. 2012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난타’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10월에는 태권도 공연 ‘탈’을 선보였다. 2013년에는 ‘K팝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의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의 마지막 공연을 WCN이 맡게 됐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의 OST를 연주하는 기획 공연을 무대에 올렸어요. 한국의 유학생들과 현지 학생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아리랑’을 비롯해 드라마 ‘겨울연가’와 영화 ‘올드보이’ ‘실미도’ ‘건축학개론’ 등의 음악을 영상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러한 공연들과 친선음악회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송효숙 대표가 추구하는 WCN의 모습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등지를 틀고 있는 WCN으로서는 가교 역할에 유리한 점도 많지만, 같은 이유로 어려운 점도 많았을 터. 특히 국내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한국 간 시차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에 또 하나의 등지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꽤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더욱 효율적인 업무 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기획사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설립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한 거죠. 서울지사 설립 이후 여러 부분에서 WCN의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기획 공연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근래에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마스터 클래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효숙 대표는 WCN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자선음악회를 꼽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개최해 성금을 모아,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오는 12월 3일에 다시 한 번 자선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자선콘서트 외에도 매달 한 번씩 양로원을 찾아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 중인 한국 유학생들과 현지 연주자들이 기꺼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연주회의 반응도 무척 뜨겁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던 현지 노인 분들이 음악회 후에는 한국에 대해 부쩍 많은 관심을 보이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가 음악회를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WCN이 그동안 꾸준히 해온 친선음악회와 자선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은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송효숙 대표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다져온 WCN의 네트워크를 활용,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한국의 연주자들을 발굴해 유럽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뮌헨 ARD 콩쿠르에서 송효숙 대표가 후원하는 피아니스트 신미정·박상욱 듀오가 피아노 듀오 부문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자선음악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고 후원하게 된 이들이 이뤄낸 성과는, 매니지먼트를 계획 중인 송효숙 대표에게 큰 힘이 됐다.

“이제 5년 차인 WCN은 기획사로서는 아직 신생아 같은 단계지만, 그동안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친선음악회와 자선음악회 등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으로 시야를 넓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글 임형준 기자(byejun@gaeksuk.com) 사진 심규태